

다시 열린 손학규의 입 광주서 MB 맹공

지방선거 계기 정치복귀 신호탄

“세종시 수정은 국민 갈아뭇개는 것”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에서 집거하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었던 그간의 행보와는 달리 지방선거 입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현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공격을 하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계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손 전 대표는 21일 오후 민주당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강권·공포 정치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 4대 강 등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무시하고 갈아

뭇개는 반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대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최근 법원과 검찰 갈등에 대해서도 “PD수첩 무죄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가 이제는 사법부 탄압까지 나설 태세”라며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대법관이 책임져라’ ‘사법부가 정권과 맞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사법부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됐다,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면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2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화갑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광주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광주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손 대표의 이날

발언 수위를 놓고 볼 때 지방선거 이전에 정계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

게 “당장 정계 복귀의 뜻은 없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이 지원을 요청하면 선택 나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 1만명 성황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광산 을)은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서전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손학규·한화갑 민주당 상임고문, 이



해찬 전 국무총리,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와 지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주승용·이석형 “결선투표 도입을”

민주당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들이 국민 참여경선을 전제로 한 결선투표를 주장하고 나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대해 환영한다”며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군수는 “과반수 득표 없는 후보자



를 선출하면 대표성과 여론, 당원의 통합을 저해하고 동원경선의 폐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2002년 전남도지사 경선 결선투표에서 대이변이 연출돼 민주당 물결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선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의원도 “국민참여경선을 전제로 한 결선투표 도입에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와 결선투표에 참여한 후보간의 합중연령 과정에서 폐해는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을 기초의원 정원 늘려야”

광주 광산구의회 김민종 운영위원장과 비아동, 첨단 1.2등 주민들은 21일 “광주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최근 인구가 17만1천여 명인 광산을 지역구 기초의원은 5명 뺄도록 하고, 인구가 17만명인 광산갑 지역구 기초의원은 8명을 뺄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은 행정동의 대표가 아닌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또한 인구수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부상자회, 강운태 의원에 질의

5·18 구속부상자회는 21일 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강운태 의원의 행적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80년 당시 사무관이었던 강 의원이 광주에 내려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 달라”며 강 의원의 블로그와 자서전 내용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줄 것을 공개질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해 “목숨을 걸고 4박5일 동안 5·18 현장에 내려와 상황을 파악한 뒤 상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소명된 만큼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작심 비판

“통합 뒀전 골목대장 연연”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사진)이 뉴 민주당 선언 발표를 앞두고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손학규 전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에도 쓴 소리를 뱉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광주지역의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복당을 위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겠느냐”며 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추미에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김 의원은 “너무 가혹한 징계며 당원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3개월 정도로 줄여야 당내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위기 상황”이라고 정의한 뒤 “당내 인사들은 골목대장(당권)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비우고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배심원제’ 갈등 점화

“특정인사 배제용 아니냐” “공정성 문제 없냐”

비주류의 정세균 대표에 대한 맹공과 추미에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징계 이후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내 갈등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은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큰 어려움 없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방안 ▲시민사회단체가 공천하는 형식 ▲일부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국회 의원과 지방선거 도전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당내 일부에서는 시민배심원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미 1천여명 이상의 풀(pool)이 마련됐다는 소문이 도는 등 시행을 최종 결정하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선의 박상천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유인물을 통해 “배심원 200명 중 100명의 현직유권자배심원은 통일원 투표가 불가능한데 반해 외부인사배심원은 통일원 상향의 투표를 할 것이어서 외부인사배심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공천 받을 것”이라며 “외부인사는 지역 실정을 모른다는 점에서 유력한 토착후보가 ‘결과가 뻔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는 당의 공천에 당원과 지역 위원회, 정당이 완전히 배제되고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과 ‘자치’가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의 장세환 의원도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시민배심원제는 후보에 의한 선거인단 매수가 용이해지면서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중앙의 전문 배심원단은 현지

사정을 모르는 탓에 후보에 대한 정보를 당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의한 선거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현지 선거인단은 지역 특성 상 의견을 통일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중앙 선거인단은 의견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어 중앙의 뜻이 현지의 뜻을 지배하는 결과, 즉 수도권 유권자가 지역대표를 뽑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시민배심원제는 국민과 당원이 갖고 있는 공천권을 일부 빼앗아 당 지도부에 되돌려주는 시대 역행적인 반개혁·반민주적·반지방적·반자치적인 제도”라고 혹평했다.

광주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취지는 좋지만,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라권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주승용 의원도 지역대표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공무원 2월 1일 시작반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국인, 똑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원칙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복고교육행정직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9월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역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